| 현불 논단 |

여름휴가는 〈불교성전〉과 함께

김형중
前 동대부여고 교장



지난 2월 종단본 〈불교성전〉 봉정
불교 교리 · 사상 통시적 이해 용이

잘 활용해야 '聖典' 역할 가능해져
독후감 · 사경 공모전 등 읽기 독려
어린이 성전 · 전문해설서 발간해야

대장경은 지혜 담긴 보배의 저장고
여름휴가서 읽을 필독서 강력 추천

지난 2월 24일 조계종은 최초로 종단본 〈불교성전〉을 금장으로 제작하여 부처님께 봉정하였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일상 언어로 쉽게 기술되었고,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어록 등을 용해해서 수록하였다. 불교 교리나 사상을 통시(統視)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여 독자는 읽기 좋고, 법사는 설법하기 좋도록 편찬되었다.

불교성전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지혜의 결정체요, 집합체이다. 불자가 신행을 하는데 의지처요, 불자가 나아갈 방향과 목표점을 제시한 안테나요, 내비게이션이다. 종단본 〈불교성전〉이 이제야 세상에 나온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앞으로 우리 불자들이 자나 깨나 읽고 또 읽고 해야 할 법보(法寶)이다.

〈법화경〉의 일곱 가지 비유 가운데 '옷 속에 감춰진 구슬의 비유(衣珠喩)'가 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착한 불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원한 중생으로 사는 것이고, 드러내서 잘 사용하면 곧바로 부처의 삶을 살아간다는 가르침이다. 종단본 〈불교성전〉도 마찬가지다.

유교의 사서삼경이 고려, 조선시대에 국민의 필독 교과서가 된 것은 국가 과거시험의 교재였기 때문이다. 심혈을 기울여 종단에서 편찬한 〈불교성전〉을 종단이 큰 권위를 부여했다. 이제 일반 불교도서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성전(聖典)'이 되었다. 앞으로 종단은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신행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는 불교성전 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독후감공모전, 사경 공모전, 성전의 문구 캘리그래피(손글씨) 공모전, 불교교리 퀴즈경시대회 등을 전개하여 불자들이 성전을 읽을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둘째는 법회의식에서 불교성전 읽기 의식을 추가하고, 어린이 · 청소년용 〈불교성전〉과 〈불교성전〉 해설서를 편찬해야 한다.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도록 불교성전 유튜브 강설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하며, 불교성전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한다. 셋째는 불교신도와 승려의 신행 평가나 면접에서 교재로 활용해야 한다.

더불어 불자들이 해야 할 일은 첫째는 모든 가정에 불교성전을 비치하고 매일 한 구절이라도 불교성전 읽기를 생활화하자. 둘째는 신도회나 신행단체별로 성전 홍포불사운동을 전개하여 호텔, 군부대, 교도소 등에 불교성전이 비치될 수 있도록 하자.

〈금강경〉에 "만약 어떤 사람이 〈금강경〉 한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준다면 그 복덕은 칠보로써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크다"고 성전의 수지독송과 홍포설교의 공덕을 설하였다.

코로나19와 마스크에 빼앗긴 그 동안 숨 막히고 답답했던 시간들이었지만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니 설레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역경을 지혜롭게 극복했을 때 해당되는 명언이 된다.

필자는 약간의 불면증이 있다. 억지로 잠을 자려고 애쓰면 밤을 샌 일이 부지기수이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잠을 자지 않고 잠이 올 때까지 책을 읽는 습관이 있다. 〈불교성전〉을 구입하여 격동하는 마음으로 3일을 밤낮으로 끝까지 보았다. 대장경(大藏經)은 분명 삶의 모든 지혜가 담긴 보배의 저장고이다.

코로나 여름휴가철에 불교성전을 읽는 기회로 삼아보자. 여름휴가에서 여행을 떠나면서 필수적인 것이 독서를 위한 책을 선정한다. 지속가능한 삶과 휴식을 하려면 마냥 노는 것은 불안하다. 올해 코로나 여름휴가철에 불교성전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만들어 보자. 책은 읽는 즐거움이 있고, 한없는 지혜를 일깨워 준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늙음은 마음에서 온다

가을의 화려함을 어디에 비할 수 있을까요? 가을 단풍은 봄꽃보다도 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나뭇잎들이 연출하는 색의 향연에 초대받았으니 마음껏 즐겨야합니다. 우리에게 올해의 가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문득 오래 전의 신문기사가 생각납니다. 미국에서 상원의원까지 지낸 H씨가 그의 70세 생일에 자살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유언장과도 같은 그의 메모 속에는 오슬러 박사의 '한계의 법칙'에 대한 글도 있었습니다. 인간수명에 대한 학설(學說)을 다룬 짧은 글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오슬러 학설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은 70세가 정명(定命)이다. 정명이 지나면 인간의 활동적인 원인은 이미 끝난다. 즉 지상에서의 인간의 임기가 종말을 고하는 셈이다. 나는 이제 더 살아본들 사는 보람이 없으므로 자살한다."

H씨는 '인간은 70세가 되고 나면 이 지상에서 무용지물(無用之物)이요,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성가신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오슬로의 학설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명을 한정해 버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의 한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수명을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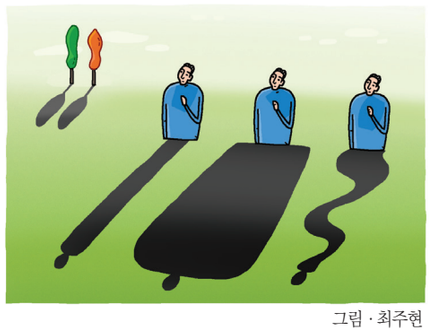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H씨처럼 자기의 수명은 '이만큼이다' 라고 믿게 된 사람은 제 아무리 건강을 누리고 있더라도 자신이 예상한 나이가 되면 스스로 정해놓은 규정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속하는 것이지요. 마치 누에가 자신의 입에서 뽑아낸 실속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절망감이나 비애감은 몸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에 나타납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이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거나 늙어죽고 만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맙니다. 인간은 자신이 어떤 한정된 힘밖에는 없다고 믿을 때 그 이상의 힘은 결코 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나는 젊고 생기발랄하고 이 세상에 아직 쓸모가 있어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의 육체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젊어질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연령에 이르게 되면 노쇠의 징후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육신이 변화하고 달라진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우울해질 이유가 있습니까?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버린다면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신도시포교 불사에 관심을

한국불교 신도시포교의 거점이 될 위례 상월선원이 7월 6일 착공식을 열고 불사 시작을 알렸다. 상월선원이 들어서는 경기도 하남시 불사 현장은 특전사 군법당인 호국 사자사가 위치했던 곳이다. 호국사자사는 1988년 특전사 불자대원들의 신행 공간이자 군포교를 위한 전략 도량으로 1만여㎡에 법당과 요사채 등 4동의 부속건물이 있었다.

위례신도시 개발로 인해 특전사가 이전되며 호국 사자사도 이전이 불가피했고, 사자사 자리는 신도시 종교용지로 개발됐다. 이에 조계종은 2014년 호국 사자사 부지를 종교용지로 분양받고, 수많은 인허가 과정을 거쳐 이날 불사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상월선원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그동안 불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화시설을 지어 지역민들에게 회향하겠다는 계획에도 사찰 법회 시 소음과 대중 운집 등을 빌미로 각종 민원이 제기됐다.

주변 개신교 교회 건립에 대한 민원에 비해 현격히 많은 사찰 건립에 대한 민원은 주민 중 특정 종교인들의 집단행태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낳게 했다.

불교계가 한발 물러서 당초 제시한 불사에 비해 현격히 축소된 대웅전과 요사채 만을 짓기로 한 것은 이러한 반대 여론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도시 포교를 위해서 상월선원은 계속된 불사를 진행해야 한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서울 동남부와 하남 등의 전략적 포교를 담당할 상월선원 불사에 불자들의 전방위적인 동참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나눔의집, 이대론 안 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안식처 나눔의집이 운영논란 사태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임시이사회서 상임이사 직무대행에 성남 봉국사 주지 혜일 스님이 선출되면서 일부 기대의 시각들이 나오지만,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경기도가 정상화를 명분으로 스님이사 5명을 해임하면서 나눔의집은 올 1월부터 임시이사회 체제로 운영 중이다. 당면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임시이사회의 권한이 한정된 까닭에 이렇다 할 타개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상화 과정이 지지부진했던 6개월 간 내부갈등은 고착화된 모양새다. 일부 내부직원들의 근무지 이탈과 지시불이행, 임의적인 업무수행 등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후원금 규모도 90% 이상 급감했다. 사회적 뭇매를 맞는 과정에서 후원자들이 이탈할 수는 있지만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사태 당시 추락한 사회적 신뢰도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보호하는 시설이자, 과거 무관심과 편견으로 점철됐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이끈 성과가 있다. 어려운 시절 할머니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불교계가 나섰고, 이후 30년 가까이 불교계의 원력과 관심으로 지속돼 왔다. 불자들이 시급한 정상화를 염원하는 이유다.

지난해 이사 스님들에 대한 횡령 등 각종 의혹들은 경찰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해임조치를 고집하면서 나눔의집이 정상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진행중인 '해임명령 무효 소송'과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 등 부당성을 가리기 위한 법정 공방이 모두 끝났을 때는 나눔의 집이 더욱 어려운 상황일지도 모를 일이다. 조속히 정식이사회가 가동돼 진정한 의미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윌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광고국 (02)2004-8215~6 /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